다산포럼

20대에게 듣는다

강진갑
전 경기대 교수

2022년 한국의 봄은 어떤 이에게는 잔인한 계절이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이 되었다. 선거를 전후하여 선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면 대답을 다 듣지 않아도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이 되었고, 그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TV 시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도 예측이 되었고, 그 예측 역시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인간은 자신의 과거 직간접 경험을 통해 신념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때문이다.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 축적된 지식이 많을수록 어떤 주제에 대해서나 '즉문즉답'하듯이 거침없이 바로 해답을 내놓는다. 그런데 궁금하다.

2020년대인 지금 한국 사회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답을 구해도 괜찮은 것인가? 인간의 신념 체계 구성에서 20대의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한다. 그렇다면 40대 이상 연령층의 신념 체계에 영향을 미친 시기는 20세기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되다시피 한국 정치에 대해 상반된 신념 체계를 드러낸 50·60대 연령층의 20대는 1970년대와 80년대이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독재 체제하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농업 사회에서 벗어나 근대 산업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과제인 시기였다. 이 시기 한국은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를 열심히 따라 배웠고, 소련과 북한의 사례를 우리의 미래로 설정한 이도 있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제 성장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바쁜 시기였다. 이때의 화두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지?"였다. 이 시기를 거쳐 1990년대에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였다.

50·60대와 대화를 나누면 이들의 말속에 1970년대와 80년대의 경험이 곳곳에서 배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에 대한 자부심도 동시에 묻어 나온다. 이들 세대의 자부심을 누구도 탓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한국 역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연령층 남자는 40·50대 연령층과 다른 선택을 했다. 20대 연령층 여자와 60대 이상 연령층도 마찬가지다. 선거 후 50·60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20대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비난하는 이들까지 있다.

이들 20대 연령층은 지금 21세기에 20대 청춘을 보내고 있다. 한국의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르다. 한국의 양대 정당을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들 양대 정당을 구태여 진보·보수 정당으로 나눈다면, 지금의 20·30대 연령층은 이 양당이 집권하는 시기에 청년으로 살았다. 21세기 한국 정치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이를 이루어나간 시기였지만 타도해야 할 군부 독재 권력이 존재하는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고, 한류로 상징되는 한국의 문화는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 문화가 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처럼 20·30대 연령층과 40대 이상 연령층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한국 역사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이들의 신념 체계를 다르게 형성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전 '20대와 30대에 듣는다'라는 콘셉트로 젊은 대학원생들과 집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중 한 20대 여학생은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외국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지표가 20세기와 다르기에 한국의 발전 모델을 구태여 외국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0·30대의 주장은 당당한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20세기처럼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가에서 해답을 찾을 시기는 지났다. 우리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 떠나는 외롭고 힘든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 여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금기시 여긴 것은 물론 당연하게 여긴 모든 것에 대해 '왜?' '과연 그러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출발하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춘 톡톡

대학은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김청우
조선대 수학과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거친 그 길의 끝은 대학교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인생의 절반을 공부하면서 보냈다. 모든 학생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토대로 우리는 대학의 문턱을 넘었다. 그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밤을 새우며 공부하거나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멀리하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자기 소개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이라면 흥미가 있지 않아도 참여했을 것이다. 그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안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에 가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모든 것을 감내한다. 모두가 알 만한 좋은 대학에 가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직업을 얻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아마도 나를 둘러싼 주위 환경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취업난. 그동안 손에 쥐어 보지도 못한 돈을 빌려 학업을 유지하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 등 수많은 짐을 갑작스레 떠안게 된다.

최근에는 지역 대학에서 '벚꽃 엔딩'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역에서부터 대학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반영한 말이다.

학업의 마지막 단계라 생각했던 대학에는 상상과는 다른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됐던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온다.

이러한 고민을 해 보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대학이 정해 놓은 교육과정대로 학습해야 한다. 이를 성실히 수행했다 하더라도 마법처럼 일자리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치열한 취업 시장에 맞설 현실적인 대비 방안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학의 관문을 통과한 우리는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넘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 같은 과정을 지나오며 느낀 바가 있다면 기성세대와는 달리 지금의 세대는 단순히 '통과'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대학 입학과 졸업,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좀 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대학이라는 넓은 발판을 활용해 최대한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학은 취업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레드카펫이 아니다. 그 레드카펫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대학에 갔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우리가 남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은 자유도 행복도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나지 않는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찾아 그 길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대학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며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우리의 갈 길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 보는 건 어떨까.

기 고

장애인 고용은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

원종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부유한 국가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이르는 정도가 되었고 K-팝, K-드라마 등 K-컬처는 세계인이 선호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군사력 및 문화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한국을 선진화된 사회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겉으로 드러난 각종 수치와 지표는 분명 선진국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기준 이외에 더 주목해야 할 기준이 있다. 그것은 그 사회가 '약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우하는가'이다. 모든 사회에는 약자가 존재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선진적 사회인지 후진적 사회인지가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다. 하지만 장애인이 곧 사회적 약자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장애' 자체가 아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진짜 이유이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월 평균 상시 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법률의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담금을 부담할지언정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광주·전남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광주 지역에서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68개에 이르는데 장애인 고용률은 2.93%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군에서 그 비율이 더 낮다는 사실이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1000인 미만에 해당하는 14개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38%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사항이 되었다. ESG 경영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기업의 선한 영향력은 곧 그 기업의 경쟁력이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첫 번째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오는 4월 20일은 42회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장애인의 날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약속할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장애인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공허한 약속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미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고용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적 권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광주·전남 지역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社說

'서오남'에서 '경육남'으로…말뿐인 국민 통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장관이 내정된 부처는 기재부를 포함해 국방·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여덟 개다.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았다지만 성별·세대·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 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여덟 명 중 여성은 한 명뿐이다. 그것도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연령은 60대가 다섯 명, 50대가 세 명으로 평균 60.5세이다. 출생 지역은 경남·경북 각 두 명, 대구·서울·제주·충북이 각 한 명이다. 영남 출신은 다섯 명인데 호남은 한 명도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북 전주 출신인 점을 감안해도 지역 균형을 잃은 편중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정의당은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인수위에서 '경육남'(경상도 출신·60대·남성) 내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아직 열 개 부처의 인선이 남아 있지만 초대 내각 출발부터 호남 출신이 발탁되지 않은 데 대해 지역 민심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정관계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처럼 호남 소외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능력 있는 호남 인물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냐"는 반발도 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운영 화두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제시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조만간 이어질 2차 인선에서는 성별·세대·지역 등에서 통합의 정신을 살려 탕평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세가 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필요하다

광주·전남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엊그제 발표한 '광주 지역 1인 가구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는 19만 3948가구(2020년 기준)가 홀로 사는 1인 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 전체 가구수의 32.4%를 차지한다. 전남은 33.7%가 1인 가구다. 광주·전남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31.7%)을 넘어섰다.

광주의 1인 가구는 지난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세부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남성 5.9%, 여성 15.9%로 여성 1인 가구가 남성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희망하는 지원 정책 1순위로 '주택 안정 지원'을 꼽았다. 또 여성은 '돌봄 서비스' '건강 증진' '심리·정서' 지원 순으로, 남성은 '건강 증진' '돌봄 서비스' '가사 서비스'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20~50세 미만 1인 가구는 '주택 안정'을, 70대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각각 지원 희망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광주·전남 지역이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1인 가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걸맞게 행정·사회복지 시스템을 손봐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주거·복지 정책은 물론 의료와 문화·사회·지역 정책 등에서 맞춤형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종래의 가족 개념으로 대처한다면 1인 가구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른 복지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로 촘촘한 행정 지원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골프 황제

어제 끝난 '2022년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의 힘들어 하는 표정이 TV 중계 화면에 자주 잡혔다. 굴곡이 심한 오거스타 코스를 도는 그의 발걸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릎을 굽히지 못해 그린에서 퍼팅 라인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무래도 지난해 자동차 사고의 후유증인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당시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대수술 끝에 석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불과 넉 달 전까지는 목발을 짚고 다녔다. 그의 필드 복귀 전망은 어두웠다. 골프 투어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재활에 전념한 끝에 올해 마스터스 컷을 통과했고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와 함께 예리한 아이언 샷 등 여전한 감을 선보였다. 물론 실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언더 파는 첫 날 71타가 유일했다. 2라운드에서 2오버 파로 주춤하더니 3·4라운드에서 6오버 파 78타를 잇달아 적어 냈다. 그의 공은 그린을 자주 놓쳤고 3퍼트는 물론 4퍼트도 나와 갤러리들의 안타까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최종 합계 13오버 파 301타로 하위권인 47위에 머물렀다.

이번 마스터스의 그린 자켓은 10언더 파 278타를 기록한 세계 골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6·미국)에게 돌아갔다. 우승은 셰플러가 했지만 올해 마스터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타이거 우즈였다. 우승을 넘어서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가 들어서는 티박스 주변엔 수천 명의 팬들이 따라다녔고 "힘내라, 타이거"라는 응원 함성이 매 홀마다 울려 퍼지며 마스터스의 새로운 전설을 썼다.

흔히들 타이거우즈를 '골프 황제'라고 한다. 유색 인종으로 마스터스 대회 다섯 번 우승을 포함, 통산 82승을 기록하고 있고 13년 동안 세계 랭킹 1위, 142개 대회 연속 컷 통과 기록 등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가 골프 황제로 평가받는 진정한 이유는 잦은 허리 부상, 자동차 사고 등 위기 국면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불굴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이번 마스터스 대회가 증명했다.

/임동욱 이사 겸 선임기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